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제79회 정기노회 : 10월 14일(월) 송파제일교회당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10/13)	다음 주(10/20)	10/27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승재 전도사	이강진 서리집사	이윤경 성도
	주일오후예배	최수연 성도	하유미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성경 봉독		박철호 서리집사	이미정 성도	이빛나 성도
식사 준비		이윤경 순	이강진 순	장윤경
정리		이강진 순	이윤경 순	김윤기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41호 2019.10.13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25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4장, 찬송가 380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30편				박철호 서리집사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야고보서 1장 19-21절		김	윤	기 목사
[듣기 말하기 신앙]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455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승	재 전도사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 오후 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이승재 전도사

찬 송:	찬송가 292장
기 도:	최수연 성도
본 문:	요 13:31-35
설 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계명
합심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주일
찬 송:	다 같이
본 문:	시 61:1-4
설 교:	잠잠히 하나님만
기 도 회: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 10시 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 1시 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 1시 00분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주일 - 십계명에 관하여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부정(不眞)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 설교 노트: 약 1:19-21, 듣기 말하기 신앙

1. 듣는 마음과 말하는 마음(19절)

아고보는 신자의 듣기와 말하기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인 교회를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라” 말씀합니다(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는 기술이 아닌 마음의 문제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듣기와 말하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2.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19-20절)

신자의 듣기와 말하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약 1:20). 성내기와 말하기는 모두 자기 뜻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약 1:18; 마 6:33).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듣기는 더디 하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가인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받아들이기보다 성내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분노하였습니다(창 4:5). 한편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과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히 11:4).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의를 이루는데 관심이 없었던 가인은 자기 뜻에 따라 말하고, 성을 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듣기와 말하기는 우리 마음의 문제이며,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듣기 말하기 신앙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3. 내버림과 받음(21절)

이와 같은 앎을 토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은 악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21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마 15:18-20). 또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심으시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약 1:18; 벰전 1:23). 우리에게 심긴 말씀은 또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능히 이를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맨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맨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히 12:2).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온유함으로 앞서 가신 주님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사 53:7,12).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온전함으로 자라나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 생애를 통해 이를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